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동성애 변화 위해 기도하면 처벌…‘전환 행위 금지법’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고 워싱턴스탠드가 10일 보도했다.

지난 4월 4일부터 발효된 ‘전환 행위 금지법(Conversion Practices Ban Act) 2024’에 따르면, 정부는 엘지비티(LGBT)의 성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억제’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기도나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허용한다.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NSW주 산하 차별금지 기관인 ‘차별금지위원회’는 공식 설명을 통해 “기독교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기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설령 본인이 그런 기도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독교 성직자는 “성별, 성 정체성, 결혼, 독신, 동성애에 대한 신념이나 원칙에 관한 발언”을 문서나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해당 주제로 성경공부 모임을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이 법은 누군가를 향해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NSW 정부는 이러한 기도나 목회적 상담이 공동체에 해로운 종교적 압력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단 하루의 심의만에 통과됐고, 노동당 소속 크리스 민스 주총리가 서명했고, 엘지비티 성정체성을 밝힌 독립 의원 알렉스 그리니치가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종교자유센터 소장 아리엘 델 터코는 “기독교를 요청한 사람에게 기도해주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 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주 기독교 웹사이트 ‘데일리 디클레이어레이션(The Daily Declaration)’의 작가 커트 말버그는 “한 방향의 전환만 금지하면서 다른 방향의 전환은 장려하는 급진적 배교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은 서방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미국 부통령 J.D. 밴스(J.D. Vance)의 경고 직후에 제정된 것으로, 그의 경고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법이 시행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호주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거주하는 최대 주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로마서 1:24-25)

하나님,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전환 행위 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위한 기도조차 가로막고 회개할 기회마저 박탈해 사망으로 이끄는 위정자들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질서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오만한 인간의 지성을 높이며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며 정욕을 따라가는 호주 땅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십시오. 세상 법에 굴복하지 않는 진리를 생명처럼 불드는 물러서지 않는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사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인도·네팔 폭우를 동반한 벼락으로 약 100명 사망

인도 동부와 네팔 일부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벼락에 맞아 약 100명이 사망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힌두스탄타임스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 동부 비하르주에서 지난 9일 이후 많은 비와 벼락이 떨어지며 64명이 사망했고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도 20명 이상이 숨졌다. 인접국인 네팔의 국가재난관리청도 네팔에 폭우와 벼락이 치며 8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도 기상청은 인도 동부와 중부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과 폭우가 오는 12일까지 예상된다며 재해경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통 인도에서는 우기(본순)가 6월부터 시작돼 4월은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인도 기상 당국은 이번 비는 계절과 무관한 비(非) 정기성 폭우라며 올해 4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훨씬 높고, 이상 고온 현상 발생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시편 4:5-6)

하나님, 인도와 네팔에 폭우를 동반한 벼락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소식에 주님의 궁휼을 구합니다. 주께서 바람과 비를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의 이상 고온 현상을 예측하는 경고 속에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수많은 우상숭배와 미혹으로 침된 신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피조물을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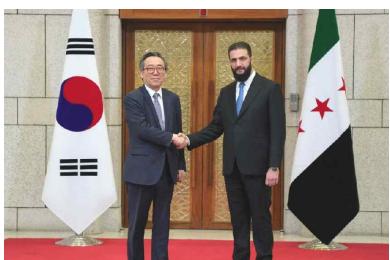
▲ 중국, 지난해 3,000건 시위 발생…75%가 경제 문제

중국에서 지난해 시위가 3,000여 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자유시보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은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중국 경제와 관련한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부진에 따라 임금이 체불되거나 삭감되는 대상이 농민, 생산직 노동자에서 공무원, 의료계 종사자, 금융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 발생한 3,000여 건의 민중 항의 시위 가운데 75%가 경제적 손실로 인한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시위가 벌어진 지역은 남부에서 북부로 확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유행한 ‘야간에 공유자전거로 카이펑 가기 운동’이나 핼러윈 분장을 통한 시사 풍자로 불만을 해소하는 등 중국 경제와 사회 문제가 연동되는 위험이 늘고 있다고 풀이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예레미야애가 3:40-41)

하나님,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국에서 심각한 경제손실로 인해 지난해 3천여 건의 시위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이 땅을 의탁드립니다. 이런 시위에 대해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꾸짖어 주시고 권력과 탐심을 미끼로 영혼들을 불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먼저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마음과 손을 주님께 들어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주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선교계, “시리아 난민들, 귀국 후 복음화 밀알 되길”**



한국이 지난 10일 우리나라와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다마스커스에서 아스 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되었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 시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하였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알-샤리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이번 한-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한국 선교계는 시리아 입국 및 새로운 중동 사역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교와 관련, 중동 지역 한 선교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복음의 봄이 시리아에 오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들은 자국에 대해서 많은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민 신분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리아 사람들이 시리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께서 사용하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 신문 종합).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예베소서 3:20-21)

하나님, 한국과 시리아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이 나라와 중동 지역 선교에도 새 일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인도적 위기에 놓인 시리아에 꼭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게 하시고, 더불어 선교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 복음을 가진 시리아 난민들과 한국 선교계가 연합하여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길을 여시고, 이들의 간구와 순종을 통해 주께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일하여 주사 속히 시리아에 복음의 봄이 오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 재선 성공…기독교 가치, 가족 원칙 수호할 것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4월 1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경쟁자 루이사 곤살레스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당선 후 기독교적 가치와 가족의 원칙을 수호하겠다며, 교육 현장에서 가족과 아동을 위협하는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노보아는 전체 유효투표의 56%를 얻으며, 44%에 그친 곤살레스를 여유 있게 제쳤다. 그러나 루이사 곤살레스는 “터무니없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거 기간 중 노보아와 곤살레스 양측은 “아동, 생명, 가족에 대한 공개 서약(Public Commitment for Children, Life and Family)”에 공동 서명해 보수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해당 서약은 복음주의 및 가톨릭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공교육 및 공공기관 내 젠더 이데올로기 홍보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보아 대통령은 2023년 첫 임기 시작 이후, 마약 조직과의 전쟁 및 치안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와 군사 작전을 단행해왔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베드로전서 2:2-3)

하나님, 재선에 성공한 에콰도르의 노보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와 가족의 원칙을 수호하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으로 세우사 국민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섭기게 하소서. 몸 된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에콰도르가 주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더욱 복음이 가져다주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맛보아 경험한 증인 된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소서.

▲ 수단 내전 2주년…난민캠프 공격 200명 사망, ‘가족 찾기’ 요청 7,700건

수단 내전 2주년을 앞두고 서부 다르푸르 지역의 엘파세르가 반군 RSF에 포위된 가운데, 반군이 난민캠프와 민간 지역을 공격해 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 전했다. 사망자 집계에는 반군인 신속지원군(RSF)이 엘파세르 인근 움카다마 마을에서 특정 종족을 겨냥한 ‘인종학살’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숨진 56명도 포함됐다. 유엔은 약 70만 명이 머무는 대규모 난민캠프 2곳에서 RSF의 민간인 살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구호단체 ‘릴리프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던 잠잠 캠프 내 마지막 진료소에서 진료소장, 의사, 구호 요원 등 의료진 9명 전원이 살해당했다. RSF는 통신망을 차단하며 만행을 은폐하고 있으며, 내전으로 1,2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는 등 사태는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수단 내에서 가족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약 7,700건 접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ICRC는 “수천 명이 실종된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이 살해당했는지, 구금되었는지, 혹은 국경 밖으로 이주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시편 146:6-7)

하나님, 내전 2주년을 앞두고 반군의 계속되는 공격은 더욱 거칠고 잔인해져만 가며 전쟁으로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있는 수단의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소서. 주여, 하나님을 반역하며 피 흘리는 전쟁을 고집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심판주 앞에 설 때는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사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속히 찾게 하시고 수단 백성들이 영원히 진실함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환난 중에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리니” 일본 거주 외국인들, 일본 교회 성장에 촉매제 역할



지금 현재 일본의 선교 상황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 미만 수준이고, 1억 2,00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을 섬기는 교회는 가톨릭을 포함해서도 1만 개가 되지 않는다.

또한 2016년 일본선교대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개신교회의 81%는 교인 수가 50명 미만이고, 목회자의 75%가 60대 이상이었다. 2025년 3월 초, 기독교잡지 크리스채널 티투데이(CT)는 일본의 몇몇 사역자들과 온라인 대담을 갖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교회의 성장에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다.

삿포로(Sapporo)에서 사역하는 44세의 요시나가 고우키(Yoshinaga Kouki) 목사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필리핀, 베트남, 네팔, 중국에서 온 이들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일본필리핀교회협회(JCPC) 회장인 보이 알린소드(Boie Alinsod) 목사도 1998년 일본으로 건너와 26년간 도쿄에서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교회가 24개의 셀교회로 부흥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일본 특파원 경험을 살려 도쿄에서 목회하고 있는 램 와이 찬(Lam Wai Chan) 목사 또한 2019년에 20명 정도였던 교회를 맡게 됐는데, 정서적, 감정적 필요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위클리프선교회(Wycliffe International)의 아시아태평양 대표인 타카시 후쿠다(Takashi Fukuda) 선교사는 현재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 중 20%가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들이 앞으로 일본 교회 성장의 중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사도행전 15:16-17)

하나님, 선교 역사는 오래됐지만 마치 복음의 불모지와 같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쉽지 않았던 일본에 외국인들을 통해 교회 성장을 이루신 주님의 열심을 찬송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부패하고 거짓된 심령을 거룩한 성전 삼으셨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 일본의 무너진 장막을 복음으로 다시 지으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튀르키예, 대규모 국제 마약조직 적발…234명 구금

튀르키예 당국이 대규모 국제 마약조직을 적발해 234명을 구금했다고 연합뉴스가 국영 TRT하베르 방송을 인용해 15일 보도 했다.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이번 수사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럽연합(EU) 합동경찰 유로폴 등과 8개 월간 공조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튀르키예를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지에서 활동해 온 4개 마약조직이 적발됐다. 당국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총 2만 1,251kg, 332만 정 분량의 마약을 압수하고, 부동산 681건, 차량 127 대, 은행 계좌 등 130억 리라(한화 약 4,874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조직원들은 남아메리카산 코카인을 튀르키예와 유럽으로 밀수하려 했으며, 이란·아프가니스탄에서 헤로인, 벨칸반도에서는 신종 마약 ‘스컹크’, 유럽을 통해 엑스터시를 운반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펜타닐 등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을 유럽으로 운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흘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뿐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에스겔 36:18-19,25)

하나님, 이번에 드러난 국제 마약조직의 실체를 통해 온 열방이 마약의 어둠에 휩싸여 있음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마약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열방에 뻗어 나간 범죄 조직들이 뿌리뽑히게 하옵소서. 인간의 정욕과 탐심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열방의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튀르키예와 열방의 교회가 이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사 열방을 정결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 니카라과, 사순절·부활절 교회 행사 다수 중단…정부 주최 행사로 대체

니카라과 정부가 사순절과 부활절 같은 주요 기독교 절기를 교회가 주관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정부 주도의 ‘종교 행사’를 열어 신앙을 통제하고 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션(ICC)이 최근 밝혔다. 니카라과 정부는 2024년 성주간(Holy Week)에 약 4,000명의 경찰을 동원해 성주간 행진 등 전통 가톨릭 의식을 차단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교회가 아닌 정부가 주최하는 성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좌파 혁명 세력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집권한 정권을 이끄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은 최근 수년간 수백 명의 사제, 목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을 추방했으며, 2024년 11월에는 모든 수녀들에게 12월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망명 중인 니카라과 야권 지도자 펠릭스 마라디아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산디니스타 정권은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대체 교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종교 상징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님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잠언 21:24,30)

하나님, 사순절과 부활절을 교회가 주관하지 못하게 막고 정부 주관행사로 대체해 기독교를 통제하려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하고 교만한 니카라과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땅의 권세와 바꾸려는 망령된 자들에게 모든 불의에 대하여 매일 진노하시는 여호와의 공의를 나타내사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부활절을 맞은 니카라과 교회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심령에 새겨주셔서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